

Left21.com

2011년 3월 3일 중동의 민중 반란 호외 3호

리포트21



Benghazi 주민과 반카다피 군인들이 Benghazi 해방을 축하하고 있다

# 서방의 군사 개입 반대한다 카다피는 리비아 민중에 의해 타도돼야 한다

리비아 혁명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 개입 의도가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선 전 미국방부 장관 폴 월포위츠, <위클리 스탠더드> 편집장 윌리엄 크리스틀 등 네오콘들이 오바마 정부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라고 촉구했다. 나토는 긴급회의를 열고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논의했다. 영국도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리비아에 군사 개입의 초보 단계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추진하면서 제6함대 등 해·공군 전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가 수에즈 운하에 근접했고, 2천 명의 해병대를 태운 강습상륙함 투입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한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카다피가 반정부 시위대를 학살해 인도주의적 재앙을 만들고 있다'며 이를 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물론 카다피가 전투기와 미사일로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것은 전 세계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서방 국가 지배자들은 카다피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카다피가 자국민을 학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는 바로 서방 정부, 특히 미국·영국 정부에게 산 것이다. 더구나, 미국·영국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전투기로 폭격해 왔다.

## 왕초 살인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백만 명을 학살했고 지금도 무인폭격기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는 자들이 카다피를 비난하고 카다피를 막아주겠다고? 86년에 트리폴리를 미사일로 공격해 민간인 2백 명을 죽였던 미국이 리비아 민주화 투쟁을 도와야 한다고?

역겨워서 참기가 힘들 정도이다. 중동의 미치광이 살인마가 설치자 그것을 핑계로 전 세계적 왕초 살인마가 나서겠다는 격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국주의가 중동을 지배해 왔다. 서방 제국주의는 중동 문제의 일부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무력을 사용해 중동을 정복했고 자기에게 고분고분한 정부를 세웠다. 제국주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독재 정부를 지원하고 석유를 통제하며 점령과 학살을 반복해 왔다.

그럼에도, 리비아의 참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외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게 제국주의 국가 지배자들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카다피가 '반외세'를 내세우며 스스로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만 돕게 될 것이다.

더구나 서방 국가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카다피를 "지역의 실력자"라고 부르며 친구로 지내 왔다. 영국·이탈리아 정부와 카다피의 친밀한 관계는 유명했다.

2009년에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미국을 방문한 카다피의 아들 무타심을 성대하게 환영한 바 있다. 당시 힐러리는 "저는 무타

심 카다피 장관을 맞이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미국과 리비아간의 관계에 대해 깊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걱정하는 것은 리비아 민중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다. 중동에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석유에 대한 통제력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도 "국제 사회는 리비아 국민들의 안녕보다 현지 석유 가치에 대해 더 우려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려는 서방의 진짜 목적은 리비아 민중들의 무장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석유 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재확립하고 구질서를 회복하는데 있다.

탄압과 학살의 해결책은 거리의 리비아 민중에게 있다. 제 아무리 '인도주의'를 부르짖을지라도, 외부 개입은 답이 아니다.

중동 민중의 행동과 국제적 민중들의 연대만이 중동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수 있고 제국주의 영향력을 분쇄하고 중동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 올 수 있다.



# 리비아 혁명가는 말한다 서방의 군사 개입은 우리 투쟁을 방해할 뿐이다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에 사는 압델 하피드 고가는 이렇게 말했다.

“리비아 민중이 이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들이 리비아 전체를 해방시킬 것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전국 혁명위원회가 반란 세력이 장악한 도시들이 서로 협조하고 일상 생활을 가능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비아 혁명은 최근까지 무소불위로 보였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이다. 41년 동안 유지된 카다피 정부는 이제 수도 트리폴리 주변 지역을 간신히 통제하고 있다.

카다피는 저항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카다피의 군대는 기관총과 로켓으로 비무장 시위대를 공격했다.

심지어 전투기가 시위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탄압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나 서방의 개입은 재앙을 낳을 것이다. 아직 리비아 저항세력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고, 그들은 계속 그래야 한다.

## 혁명위원회

동부의 벵가지부터 서부 공업 도시인 미스트라타까지, 수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도시와 소도시들은 혁명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혁명위원회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지난주에만 8개 소도시에서 혁명위원회가 결성됐다.

혁명위원회를 본 사람들은 위원회의 효율성과 열정에 감탄했고, 위원회의 통제 아래 있는 곳에서는 ‘자유’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벵가지에서는 비록 식량이 부족하지만 빈민들은 혁명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있다. 벵가지에서 식량과 기타 서비스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제공된다.

많은 공장과 핵심 시설들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통제되고 있다. 다른 곳들은 혁명에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고용주에 의해 운영된다.

혁명가들의 군사 전략은 서방 군사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위대 진압 명령을 받고 온 군인들을 설득해 혁명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에 있다.

비무장이거나 보잘것없는 무기를 가진 시

위대들이 징집 군인들을 설득하는 데 계속 성공했다.

최근 정부군은 트리폴리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자위야를 저항세력 손에서 되찾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군 병사들은 편을 바꾸거나 투항했다. 덕분에 혁명가들은 무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군인들이 학생과 청년 대표들과 만난 후 집단적으로 혁명 편으로 넘어온 경우도 있다.

반면 서방의 개입은 결코 약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지난주에 유엔이 리비아 상황에 관해 논의를 할 때 미국 외교관들은 “민간인과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려 시

도했다. 유엔결의안에서 이런 문구는 군사 행동을 의미한다.

그들이 말하는 ‘시설’이란 원유 시설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혁명 세력들이 이들 중 8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설들은 그 어떤 위협에도 직면해 있지 않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인도주의적’ 우려를 빌미로 이 시설들을 장악하려 한다.

많은 사람이 미군이나 서방군이 트리폴리 시내를 확보하는 것을 재앙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비행금지 구역 설정이나 경제 제재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조처들은 과거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에 적용됐던 조처들이다. ‘비행금지 구역’속에

는 오직 외부 군대만이 이라크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관념이 내재해 있었다. 또, 2003년까지 10년 이상 진행된 경제 제재 때문에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과 더 많은 어른이 죽었다.

지금 리비아에 개입하려는 서방 정부들은 카다피가 시위대를 상대로 사용하는 무기들을 기꺼이 수출했던 나라들이다.

모든 서방 개입은 리비아 혁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

서방 개입은 카다피가 자신을 반제국주의자로 내세워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뿐이다.

리비아 혁명은 리비아인들이 완수해야 한다.



2월 24일 벵가지에서 반카다피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 제국주의가 중동 반란을 가로채지 못하게 하자

서방 열강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반란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지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미국 정부는 고분고분한 위성국과 군사력을 결합해 자신의 영향력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

서방 엘리트들은 다국적 기업과 온갖 썩크뱅크를 통해 카다피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미국 지배자들은 민중 권력 때문에 자기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혁명 확산과 함께 미국 지배자들은 최후의 순간에야 마지못해 친미 독재자들과 선을 그어야 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이번 항쟁을 자기 목적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하고 있다. 혁명과 가장 거리가 먼 서방 정치인들이 난데없이 시위를 벌일 권리를 지지하고 혁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호전적 언사를 남발하고 실제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리비아를 침략할 수 있는 위치로 자국 군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런 모순은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의 사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을 방문했지만 여전히 중동의 악질 독재자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일부에

서방이 군사적 통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를 둘러싸고 지배계급은 크게 고심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다. “미국 대통령에게 아시아나 중동이나, 혹은 아프리카로 다시 한 번 대규모 원정군을 파견하라고 권하는 국방장관이 나타난다면, 그의 정신 상태를 감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경험들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다.

지금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방의 지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저지할 가장 좋은 방법은 혁명이 더 확산되고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서방 제국주의가 중동 반란을 억누르거나, 가로채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